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지속적 한파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”

- 1월 6일 「도봉산~옥정선」 건설현장 방문,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당부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6일(금) ‘도봉산~옥정 광역철도’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재난취약 시기인 겨울철에,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, 이번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시행하였다.
-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“지반이 계속 얼어있는 시기에 터파기, 가시설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작업 전·후 확인·점검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는 한편, “광역철도 사업은 예정된 기간(25년 개통)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”라고 주문했다.
 - 이어, TBM 경사갱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장, 건설장비, 가시설 등 관리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였고, 현장관계자들에게 “추운 날씨에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신경써달라”라고 당부의 말도 전하였다.
- 끝으로, 이 위원장은 “이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, 양주·포천 등 수도권 동북부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 - “이와 연계되는 광역버스, 광역BRT, 환승센터 확충 등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1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